

# 2023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3.4.18.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8/10	5	2	15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최병욱 위원, 이희중 위원, 류용환 위원, 임재근 위원,  
정훈진 위원, 손기배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4	4	-	2	10	-	10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	-	10

## 다. 전월(3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화재 보도> 현대아울렛과 한국타이어 대형 화재가 대전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안전 화재예방과 불감증에 대한 후속보도를 해주었으면	화재 이후의 취발성 유기화합물의 확산 및 미세먼지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까지 보도할 예정. <23. 4월 조치>	'22.3월
보도	<가뭄피해 보도> 광주전남 지역이 봄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 대전충남도 마찬가지로 생각. 이와 관련해 물질약 캠페인 등을 전개하면 어떨지?	우리지역도 가뭄위기 상황이라고 보며 캠페인과 별개로 가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보도를 준비하겠음. <23. 4월 조치>	'22.3월
보도	<국가 산단 보도> 산단을 유치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대전이 10배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문제점 등 후속보도를 이어나갔으면	지역개발 전략에 대한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서의 미비한 점, 잘못된 다른 효과들을 거둘 수 있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 <23. 4월 조치>	'22.3월
교양	<다큐멘터리 장날 - 차별화> - 장터의 모습이 대동소이한데 개별 시장마다 장터의 역사와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갈건지? - 유튜브 조회수 높는데 왜 높은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앞으로 사라질지 모르는 시장의 모습에 대한 기록과 40대 이상을 타겟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그 지역의 장날에 모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음. 유튜브 조회수는 최근 백종원 씨의 예산시장이 화두가 되면서 장날이라는 키워드가 화제가 됐고 40대 이상의 관심 때문인 것으로 보임. <23. 4월 조치>	'22.3월
교양	<다큐멘터리 장날 - 진행방식> - VJ가 직접 진행을 하는데 리포터 등 프리젠티어를 쓰면 어떨지? - 지역 소멸의 문제 등 지역적인 문제 또는 지역별 특성까지 터치해주면 좋을 듯	<테마기행 길>등 프리젠티어가 있는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적인 문제를 접목시키는 부분은 제작진도 고민중에 있음. 추후 반영하겠음. <23. 4월 조치>	'22.3월
교양	<다큐M> 현재 꽃이 피어있는데 겨울 영상이 방송되는 등 시제가 맞지 않는데 시제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교환하면 어떨지?	보통 방송 전 주 정도 생산된 콘텐츠를 받아 구성하는데 제작진에게 전달해 최대한 시제와 무관한 프로그램으로 조치할 예정. <23. 4월 조치>	'22.3월
교양	<시시각각-민주의거 토론 패널문제> 87년 6월 민주항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전직 구청장인 정치인이 등장한 것은 민주화 운동 인사에 대한 오해 소지 있어 보여 아쉬워	전 구청장인 정치인이 다른 기관에서 주최하는 간담회에서 정리 작업을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섭외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살피서 진행하겠음. <23. 4월 조치>	'22.3월

교양	<시시각각-챗 GPT토론 편집문제> - 녹화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챗 GPT' 관련 토론시 패널이 답변을 못해 시간이 길어져 부자연스러웠는데 지루하지 않게 사후 편집을 해주길 - 어려운 기술적인 용어 사용시 자막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편집시 자막으로 보충설명 필요해	<시시각각>은 거의 실시간 개념으로 녹화를 해서 MC컷 정도만 드러내는 정도의 편집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튀는 편집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자막 삽입도 보완하도록 하겠음. <23. 4월 조치>	'22.3월
기타	<소년소녀합창단> 비영리인지 계속 운영할 것인지 공금하고 지역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창단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지역사회와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 시작한 공익적 사업으로 4월 21일에 창단식을 개최할 예정이고 향후 지역축제 및 소외계층을 위한 정기공연을 진행할 예정. <23. 4월 조치>	'22.3월
시청자 게시판 (기타)	<뉴스투데이 배경음악> 뉴스투데이 대전세종충남 방송할 때 오픈닝 타이틀 배경음악이 본사와 다른데 똑같은 음악으로 바꿔주면 어떤지?	본사에서 변경된 내용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경에 대해 검토할 예정 <23. 4월 조치>	'22.3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3년 4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최병욱	한밭대학교 총장	대덕연구개발특구협의회	과학기술단체	남/1961 21.05.01~23.04.30
부위원장	이희중	대전보건대학교 방송컨텐츠과 교수	대전동구사회복지협의회	소외계층대변	남/1964 21.05.01~23.04.30
위원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소장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단체	남/1978 21.05.01~23.04.30
위원	정훈진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남/1967 21.05.01~23.04.30
위원	황혜진	대전공공미술원 대표	대전동구문화원	문화단체	여/1977 21.07.01~23.04.30
위원	류용환	한국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대표	한국소비자모임	소비자단체	남/1960 21.11.01~23.04.30
위원	손기배	굿네이버스 대전세종지부	굿네이버스 충청본부	인권단체	남/1983 22.03.01~23.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여/1966 22.05.01~23.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남/1977 22.05.01~23.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여/1964 22.05.01~23.04.30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2023년 4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대전시 D등급 관련 후속 보도> 17개 광역 시도지사 공약 실천 계획평가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D등급을 받았는데 후속 보도를 기대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정책 비판 보도 미흡> 대전 시청 같은 경우 민심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언론에서 뒷받침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더 분발하고 신경써주시길	회의록 첨부	○		
보도	<소외계층에 대한 보도 강화> 지자체 시책이나 나라의 정책들은 의존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더 소외되고 더 외곽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회의록 첨부	○		
보도	<후속 보도 미흡 > 스쿨존 만취 운전자 최초 보도 후 10일간 거의 매일 만취 운전자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타이어 화재 등 다양한 화재 이슈는 빠진 것 같은 느낌 받아	회의록 첨부	○		
교양	<다큐멘터리 장남> - 내레이터를 서울 사람으로 해서 굳이 서울어를 내야하나 그리고 너무 도식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법도 고민해 주시길 - 상인들 인터뷰는 많은데 소비자인 일반인 인터뷰는 없어서 아쉬웠음.	회의록 첨부	○		
교양	<지역성 관련 아이템 제작>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아이템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 농촌, 지역 소멸, 인구문제 등 시리즈로 제작하면 어떤지?	회의록 첨부	○		
교양	<대전의 옛길 관련 제작 제안> 충청도 권역의 옛길을 중심으로 구간별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랑과 역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어떤지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 총선을 1년 앞두고 충청 민심을 알아보는데 출연자가 거대 양당의 시장 위원장과 그 양당과 관련 있는 교수 2분을 모셨는데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표출되지 못하는 단조로움이 있어 아쉬웠음	회의록 첨부	○		
기타	<마을 미디어 관련 제안>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가 제정 공포됨. 아직 행정기관 예산도 없는데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대전MBC에서 관심을 갖고 고민해 주시길	회의록 첨부	○		
기타 (게시판)	<시보멘트 중파방송 안내> 중파 AM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7시 시보멘트에 중파방송을 고지하고 있었음	회의록 첨부	○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8명)

최병욱 위원, 이희중 위원, 류용환 위원, 임재근 위원,  
정훈진 위원, 손기배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4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임하시는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 열분 중 여덟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4월 대전MBC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올라왔는데요. 로컬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불만 1건 그리고 AM 휴지 기간 중에 중파 방송 안내 고지 시보 멘트에 대한 이야기 1건 그리고 행사장 흡연에 대한 의견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환균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오늘 이임하시는 위원님들과 헤어지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대전MBC에 애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제작과 보도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보여주시는 애정과 관심이 시청자위원회를 떠나시더라도 계속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가 되시는 위원님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그럼 최병욱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지난 2년간 돌아보니 코로나도 있었고, 서면 회의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니다. 2년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세계사적으로도 격변의 시기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뉴스거리들이 나오고... 최근 기후변화 관련해서 3월은 더웠고 4월은 냉해가 있어서 조치원 복숭아도 안 열리게 생겼다는 리스크도 들었는데 급변하는 상황에서 소통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전MBC 시청자위원님들도 그런 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정미 위원님, 김정동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남아서 새로 오시는 위원님들하고 좋은 하모니를 이루시면 발전하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재근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소회도 말씀해 주시고 대전MBC에 부탁하실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임재근 위원

처음에 시청자위원이라는 역할을 맡았을 때 잘 몰라서 많이 고민도 하고 의견들도 어떻게 드릴까 했었고 2년이 걸어 보였거든요. 오늘은 전체를 결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 하나는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의미를 부여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제작해 주신다면 대전MBC의 강점들이 지역 사회에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청자위원을 그만 둔 이후에도 다큐멘터리 중심으로 많이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시각각>에서 4월 9일에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충청 민심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는데요. 출연자들을 보니까 양분돼 있어서 마치 한국 사회의 양당제가 TV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시당 위원장이 한 분씩 오셨고, 교수가 두 분 오셨는데 두 분의 공통점은 지난 선거에서 양당으로 출마를 했다가 본선에 오르지 못한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양당제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정확하게 표출되지 못하는 것들이 방송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양당의 시당 위원장님들의 말씀은 자당의 정치 입장들을 반복하는 입장이어서 약간은 단조로움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 여당에서는 야당 심판이라는 기준으로 똑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다행히 양측 교수님들이 정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은 선수에게 물을 맡기는 문제라고 교수님들의 비판도 있었고요.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가 더 중요하다 의견을 덧붙이면서 토론에 생동감을 살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 전원회의는 끝났는데 녹화 방송 시점에서는 그 내용이 담겨있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개 광역 시도지사들의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대전시장이 두 번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세종시장이 16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 충청을 다루고 있는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날카로움이 약간 사라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 시정 같은 경우는 민심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에 비해서 언론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과거에는 언론을 통해서 그런 민심들이 형성됐다면 지금은 언론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민심이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반인권적인 단체가 인권센터를 수탁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대전MBC도 취재는 하긴 했지만 심층적인 면에서 KBS에 비춰본다면 더 분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날카로운 취재나 보도에도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병욱 위원장

감사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이어서 류용환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류용환 위원

저는 임기 중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MBC하고 인연이 상당히 깊었던 것 같아요. 86년에 대전MBC 문화가산책에 2년간 출연을 했고 이렇게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1년 반 정도 참여하게 돼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원래 TV를 잘 안보다가 시청자위원을 하면서 봤는데 우리 지역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걸 보고 놀랍기도 하고 지역방송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해서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모니터가 아닌 다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유성구 의회에서 유성구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은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MBC같은 메이저 미디어기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 부서에서도 여기에 의지가 없고 예산 수립도 아직 안 됐습니다.

도안이라든지 산성지구 등에서 시행되거나 또는 발간 예정인 마을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신문들은 MZ세대들의 취향을 따라가지 못해서 한계성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저는 분석을 했어요. 그 대안으로 마을 미디어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전MBC가 관심을 갖고 유성구에서 만든 조례인 만큼 유성구 특성에 맞는 마을미디어 발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장비운영 또는 인력양성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사는 게 창살 없는 감옥이예요. 이웃하고 완전히 단절되다 보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지속되는데 저는 이 마을 미디어가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존 방송 3사 특히 MBC가 관심을 갖고 어떤 역

할을 하실 수가 있는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옛길을 걸어 봤는데요. 대전 충남은 국도 1호선하고 조선시대 삼남대로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과 삼남대로가 통과하는 지리적인 위치에 대전이 있고 마침 대전MBC에서 최주봉씨가 진행하는 테마기행 길을 하고 있죠. 제가 노성에서 은진까지 20km 정도 걸어봤는데 상당히 놀라운 성과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답사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이동하면서 보니까 비로소 진짜 안 보이는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러한 길의 인문학 차원에서 충청도 권역의 옛길 중심으로 한 구간별 그리고 사랑과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길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작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은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르뽁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전MBC가 충청권을 맡고 그 다음에 릴레이식으로 호남으로 이어지는 등 우리나라 6대 간선도로 가운데 북으로 가는 길은 어쩔 수 없지만 영남대로, 삼남대로, 평해도로, 강화도로 4개의 도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역 방송사들이 같이 협의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욱 위원장

마을미디어 얘기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희중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희중 위원

<시시각각> 관련해서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새로운 여행의 중심지 충남, 총선 전략 등 토론 프로그램 아이템을 찾기가 쉽지 않고 특히 지역에서는 아이템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템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역에서 해야 할 소소한 아이템으로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주말만 되면 농촌을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농촌마을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옛날 집 사진을 찍으려고 보면 3분의 1정도가 폐가인데 지역 소멸과 인구 문제가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이런 문제를 더 집요하게 한번이 아닌 10번 정도 시리즈를 하는 것도 어떨까.. 조금은 작지만 깊이 파고드는 아이템을 넓힐 수도 있고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나 농촌이 소멸되다 보니까 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심지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도 폐교가 될 정도인데 초중고 대학까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시리즈로 하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시각각에서 이런 아이템을 공론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공약 실천 계획 대전시가 D등급이라고 기사가 나왔었죠. 단신으로 처리했는데 공약 발표는 서울시에 이어서 두 번째인 55조가 됐다고 하는데 후속 기사가 조금 기대 됩니다. 말 그대로 공약만 내고 이게 어떻게 이어질지 감시견 역할을 똑바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M을 보면서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시의 적절하게 시즌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순천만 정원은 조금 더 빨리 방송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마지막 부분에서 생방송이다 보니까 댓글을 쭉 읽어주면서 그때그때 소개해주었는데 인터넷 시대에 쌍방향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큐멘터리 장날>에 굳이 김영옥을 내레이터로 사용하냐고 그랬는데 뭔가 서울티를 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뉴스는 결국 로컬방송 이잖아요. 아무리 인터넷 시대에 글로벌화 됐다고 하지만 로컬방송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우리 지역 뉴스를 듣고자 하는 수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서울티를 내는 것을 한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골이 워낙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시골 마을에 가면 사발이를 타고 다니는 데 아주 유용한 교통수단입니다. 많게는 10대 정도가 마을 회관에 주차되어 있거든요. 아들이 250만 원 주고 사줬다고 하는데 어른들이 조작이 미숙해서 고장나서 처박힌 사발이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협찬사를 잡아서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봉사단이 있으면 좋고요.

2년 동안 시청자 의원을 했는데 때로는 쓴 소리도 했고 때로는 성의 없이 말도 했는데 프로그램을 제작해본 입장에서 좀 더 깊이 말하고 싶어도 많이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현업 떠난 지가 11년 됐는데 다시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대전MBC만의 지역성을 살리자는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훈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훈진 위원

마지막이라니까 아쉽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MBC 시청자위원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처음에는 지적과 지도를 해주고 싶었고... 사건 사고 보도에서 법률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신문사에서 해보면서 이렇게 고쳐야 된다 라고 지적을 해줬는데 대전MBC 뉴스 사건 사고 보도를 보면서 저 어려운 말들을 어떻게 저렇게 잘 정리를 했을까... 물론 기자도 잘 했겠지만 데스크도 잘 검토를 했겠죠. 뉴스를 보면서 화재 사건과 사이버 종교 취재를 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대전MBC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나 가족들에게도 대전MBC에서 제작했는데 한번 보라고 추천할 정도로 너무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또 고마웠던 점은 지역적 문제나 지역적 이슈에 대해 방송에서 다뤄줬으면 했는데 <다큐멘터리 장날>이라든지 지역문화라든지 계속 발굴해내는 걸 보면서 시청자 위원이 건의했던 부분을 정말 실행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바람이라면 아직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나 현안에 대해 지역민들에 대한 바람을 조금 더 수용해서 계속 다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서 법률 용어까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손기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기배 위원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저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전달해 드리는 역할에 충실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제 추천 단체가 인권단체인데 이를 신경 쓰지 못하고 의견을 드렸던 건 아닌가 하는 후회도 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인권 단체이고 소외계층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였던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마지막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경험했던 대전MBC 방송에 관련한 내용을 어떤 걸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작년 말 난방비와 관련된 이슈들을 한 번만 짚어주신 게 아니라 연속 보도를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시책에 분명히 보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들이 연속 보도들을 통해서 정책으로까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중파 방송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다친 아이가 정형외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6주 정도 시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공제를 통해서 지원은 충분히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셔서 아이를 간호하기 어려운 여건이고, 어머니는 베트남에서 오신 분인데 허리를 다쳐서 이 분도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할머니는 80살 중반의 연로하신 상황이라서 아이가 치료를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호자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와 집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전공제회에서는 병

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단체 쪽에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정책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의존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뭔가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결국 이 최소한의 장치나 정책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에 부합하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소외되고 더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대전MBC에서 관련 보도들이라든가 지역 안에서의 필요한 이슈들을 앞으로 꾸준히 발굴해 주신다면 저희도 함께 발굴하고 지원하고 제공하는 역할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MBC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경험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 위원장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기회가 되면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은 마정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마정미 위원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떠나신다고 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회의 때마다 느꼈던 게 어쩌면 저렇게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날카롭고 예리하게 사안들을 짚어주실까 하는 감탄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MBC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으셨어요. 사회 각층에서 모신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MBC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떠나는 날까지 열심히 소임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4월 의견을 좀 드리자면 지난달에 나오지 못해서 <다큐멘터리 장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희중 위원님께서 내레이터 말씀하시면서 지역성을 살리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내레이터가 서울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굳이 김영옥 씨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날이라는 아이템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런 사라져가는 장날의 분위기를 기록할 필요도 있고요. 변화하는 모습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요.

아쉬운 건 너무 도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레이터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왜 저 사람이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강부자 씨나 김영옥 씨가 내레이션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방법이나 다른 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3일 금산 장날, 그리고 4월 6일 대천 5일장이었는데 부제가 재미있어요. 천천히 오래 보아야 더 정겨운 대천 5일장, 금산은 사랑방 손님과 상인들... 이런 소재목을 달려면 여기 뭔가 스토리가 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상인들 인터뷰가 쪽 나왔는데 대부분이 상인들 인터뷰였고 소비자들 혹은 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도 조금 아쉬웠어요. 소비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를 들었으면 조금 더 재미있는 아이템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시각각>은 3월에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4월에는 정치 시즌이 와서 정치적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정치인들 이슈는 약간 시즌성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 내용은 그다지 흥미를 끌기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도 관련해서는 지난 3월에는 한국타이어 화재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4월에는 스쿨존 만취 운전자 사건 때문에 4월 8일부터 거의 매일 9일, 10일, 11일, 13일, 15일, 16일, 17일 계속 만취 운전자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이런 사회적인 의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기는 한데 아쉬운 건 화재건이 묻혔다는 거죠. 지역 방송사가 지역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음주 사고라는 큰 사건이 있어서 한국 타이어라든가 그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화재 사건들에 관한 이슈는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중에 돋보였던 건 4월 22일 <오늘M>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인데요. 여기에서 한국 타이어 화재 이후에 주민과 상인들 피해에 관한 취재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소화해서 굉장히 다행이었고 바람직한 아이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다른 기사도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되는데요. 4월 14일 벼농사 왜 포기 못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농민의 상황 그 다음에 지역의 상황을 잘 보여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후속 보도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셨고요. 다음은 김정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동 위원

이번 달에는 <시시각각> 중심으로 봤고요. 관심 가는 주제도 있고, 저도 가끔 출연도 해서 작

가님들이나 연출하시는 입장에서도 지역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특히 민감한 사안은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상황 때문에 섭외가 정말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제 자체는 시기에도 맞고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분이 딱 빠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네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현직 위원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이런 토포프로그램을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직에 있는 시의회 사무처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출연은 필요했다고 보이는데 아마 연속으로 하다 보니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총선 전망 관련해서는 저도 임재근 의원님 말씀처럼 놀랐어요. 위원 구성이 두 당만 있으신 건지? 보통 두 당 중심으로 가더라도 패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을 모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임재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직 교수님들이지만 실제 출마 경험이 있거나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양당 얘기라면 너무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총선 유불리에 대한 궁금증과 어떤 것을 고민하면서 유권자로서 대비를 해야 될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 패널 구성의 한계로 인해서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시 D등급 받은 것과 관련해서 후속 보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료 제출을 안 해서 평가 불가로 인해 D등급이 나온 거거든요. 대전시에서 외부기관의 평가를 안 받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대전MBC 입장에서도 그러면 시민들이 각각 평가하실 수는 없으니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으실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저도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보태면 많은 분들이 늘 자주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보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MBC도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흥성 산불이 어떻게 변하는지 취재한 것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최근 방울토마토 문제 있잖아요. 아마 정부에서 일단은 부작용이 인지돼서 빠르게 국민들한테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토마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바가지를 쓰는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토마토 먹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일부 식품 대기업들은 산다고 그러고 있는데 농민들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늘 나오잖아요.

이 문제는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통조림 포르말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하고 회사는 망했는데 나중에 무죄 나왔거든요. 의도적인 게 아

니고 공정상에서 생길 수 있는 최소한의 포르말린이었다고 보는데 구속되는 과정에서 회사는 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는 일들이 농민이든 식품업자든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배상이라도 국가가 해 주든지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토마토 보도를 보면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역할도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은 대전MBC쪽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욱 편성국장

<시시각각>에 대해 임재근 위원님, 이희중 위원님, 김정동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총선 1년 전 아이템으로 지역에서 어쨌든 선거 시즌이 돌아오니 기획을 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거대 양당 중심으로 섭외가 되다보니 내용이 단조로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정치단체들이 서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장 평가 관련해서는 7월이 지자체 8기가 1년이 되는 시점이라 몇 가지 아이템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든지 간에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보도하겠습니다.

류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건은 최근에 제정돼서 제가 잘 모르는데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남대로 통과하는 대전의 옛길 아이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금산 쪽 37번 국도가 남북으로 지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도 변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콘텐츠인데 처음에 기획할 때는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지자체 요청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작 아이템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희중 위원님의 지역성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아이템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도 이게 고민인데 지역MBC 16개사가 지금 지역성 관련해서 공동 제작을 논의하고 앞으로 제작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고민을 어떤 식으로 담아낼지 고민해 보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장날> 내레이션 관련해서는 가장 다수가 만족하는 다른 분을 모시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회 시즌제로 흘러가게 되는데 다음에 시즌 2가 진행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친근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내레이터를 고민해 보도하겠습니다.

손기배 위원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장치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위원 이임하시더라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마정미 위원님께서도 <장날>에 일반인들 인터뷰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상인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헌팅을 해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요즘에 일반인분들은 초상권 등 많이 문제가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가시는 분들 모자이크를 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인터뷰도 가능하면 중간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M> 이추남에서 한국타이어 그리고 지난주에는 산불 그 후 이렇게 후속 보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재난이나 어떤 사건 현장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도 저희가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기웅 보도국장

여러 위원님들 대전시 평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매니페스토 관련 후속 보도가 나갑니다. 실제 평가 자료를 내지 않은 부분들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2차 해명이 있었는데 수천만 원 얘기가 나왔으나 실제 확인해 본 결과 비용이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런 대전시의 잘못된 해명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님의 정책에 대한 비판들 많이 말씀해 주시고 칼이 무뎠던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받아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대전 시정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떤 보도를 놓고 대전시와 불편한 관계가 있던 상황도 있었는데 언론의 본분이기도 하고요. 항상 지방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와 균형 감시에 대한 의무에 대해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뉴스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시정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외면했던 것은 아니고 선택과 집중의 과정에서 누락됐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시정이라든지 지자체들의 정책들이 몇 년간 또는 몇 개월간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으로서의 본분은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사건 보도에 대한 표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0~30초짜리 사건 법조 기사들에 있어서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부분들인데 항상 잘 지적해 주시고 있고 짧은 시간에 데스크킹을 보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2중 3중 데스크킹을 거쳐서 표현 하나하나라도 주의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소외계층에 대한 난방비 이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과거 뉴스에서 인권이라든지 소외계층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도외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MBC뉴스의 어두운 과거라고 할까요.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뼈아픈 반성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후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뉴스에 더 주목하고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저널리즘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실제 작은 이슈 하나하나라도 고쳐나갈 수 있는 언론의 기능을 계속 견지해 나가

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형 화재 이후에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스킵론 만취 운전 사건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이슈가 됐죠. 다만 저희가 현대아울렛이나 한국타이어 화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 한국타이어 화재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 근로자들의 건강권, 화재 재발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현대아울렛 화재는 피해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로 아직 남아 있고 조사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속 지켜보고 있고 또 후속 보도를 해서 이면에 있는 부분들을 집중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공방들이 여야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면서 더 먹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들에게 주목받기 쉽죠.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농민들이 왜 계속 벼농사를 질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심층적인 이유에 대해서 더 집중해 보는 뉴스들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런 뉴스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도들을 항상 말씀하셨고 조언하셨는데 대전MBC가 가장 갖추고 견제해 나갈 중요한 부분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보도 중요하고 특종도 중요하지만 이슈들에 대해 사람들이 인지 않고 계속 기억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사회적인 관심들을 불러오는 게 저희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따끔한 지적과 어떤 때는 따뜻한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은표 간사

특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위원장님과 사장님 인사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이임하는 7명의 위원님들은 지난 2년 동안 마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들을 잘 전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를 비롯해서 신생 미디어들이 엄청나게 많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대전MBC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만큼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요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전하고요.

앞으로도 더 이상 지역 소멸 문제 얘기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대전이나 충청 지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자기의 위치에서 각자 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김환균 사장

그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남아 계시는 마정미 위원님, 김정동 위원님, 새로 오시는 분들 분위기가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청자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전MBC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계속 묻고 있는 게 지역성은 도대체 뭐지? 우리 대전MBC의 구성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지? 저는 그게 서로 다른 거라 할지라도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글로벌한 거 다 빼버리고 나면 이게 지역성인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내가 만드는 것이 지역성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그 동안에 깨달았어요. 지역성이라는 말이 어찌면 구호였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역 언론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좀 답답함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요.

오늘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희중 의원님께서는 사발이 이야기를 해 주셨고, 손기배 위원님께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기사나 PD가 이걸 한번 취재해야 겠다 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역성이라고 하면 걱정 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사발이 문제라든가 빈집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구체적인 사고가 시작된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대전은 노잼도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노잼도시라는 말을 대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요. 제가 요즘 계속 만나는 분들마다 이야기 하는 게 그 말을 아예 쓰지 말고 디테일을 이야기해 주면 된다. 종군사진 기자로 유명했던 카파라는 분이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피사체에 다가가면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멀찌감치 있기 때문에 대전은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대전은 재밌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위원님들도 그 이야기부터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이것으로 4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